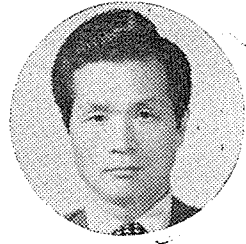


—科學을 심는다면—



張 相 權

山林廳 집계에 의하면 이번 植木日 하루에 4천5십만 그루의 나무가 우리 강토에 심겨졌다고 한다.

우리 國民이 男女老少할 것 없이 한 그루씩은 나무를 심었다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심겨진 나무들이 우리산을 뒤덮을때 소망스러운 山林綠化는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光復이후 해마다 植木日을 맞았고 산에 나무를 심었다.

또한 우리 周邊에 造景을 위해 나무를 심었다 그러나 우리의 산들이 아직도 헐 벗었음을 본다. 나무를 심었다고 푸르려 지는것은 아니다. 계속가꾸고 돌보아야 자란다는 것은 평범한 진리이다.

「새마을 運動」이 定着해가는 요즘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있다.

植木하는 자세도 전과는 다르다.

우리가 한가지 생각하여 볼 일은 비단 山林綠化의 目的만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나무를 심은 것일까?

4월은 식목의 달이면서 科學의 달이다.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이 科學을 이땅에 심자는 뜻에서 이달을 科學의 달로 定한 것이라고 생각 해본다.

바둑판에서 바둑을 놓을때 하나의 돌을 놓고 두 세 수를 期待하듯이 오늘 우리가 심은 한그루의 나무에서 다른 意味를 찾는다면 나는 서슴치 않고 이땅위에 科學을 함께 심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科學」이라는 樹種의 나무를 심어놓고 우리는 國力培養이라는 結實을 期待하는 것이다.

「科學과 技術」이것을 우리 스스로 가꾸지 않으면 누가 하여줄 것이며 이것 없이 適者生存의 生物的原則만이 적용되는 이 각박한 국제정세하에서 어떻게 견뎌나가고 이겨 나갈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오늘 科學을 이 땅위에 심었다고 만족하기에 앞서 科學을 우리 마음에 심는 작업을 병행시켜야 할 것이다.

時間이 흐름에 따라 우리는 망각하기 쉽고 우리생활이 바빠짐에 따라 무엇을 위하여 나 자신이 이렇게 바쁜지 目的意識을 잊어버리기 쉽다. 남이 하니까 漠然히 따라하는 模倣性에 빠지기 쉽고 전부터 그렇게 하였다고 하여 無批判의 慣習性에 흐르기 쉬우며 相對方의 立場을 고려치 않고 자기본위의 고집을 앞세워 일을 그르치는 예가 허다하다.

다시말해서 우리는 우선 우리의 사고방식부터 合理性, 能率性 創造性에 입각한 科學하는 마음으로 現代化해야 할 것이다.

國民 하나 하나가 나무를 심는 마음가짐으로 하루 빨리 이땅에, 우리 마음에 科學을 심지 않으면 祖國의 近代化는 기대하기 어렵고 우리의 후손은 또 한번 조상을 원망하게 될 것이다.

시원하게 뚫려진 高速道路..... 이위를 미끄러져 가는 갖가지 自動車의 바퀴들..... 이 바퀴의 回轉數에 따라 빨라지고 늦어지는 自動車의 달림 처럼 80年代의 先進工業國을 向한 「科學立國」「技術自立」을 加速化하기 위한 액셀레이터를 우리 모두 다같이 「科學의 달」인 지금부터 밟아보자!

—植木行事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筆者 科學技術處 造成課長